

[ 종합·해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구식 의원 등이 서울 용산 철거민 집압 시정사업과 관련,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회를 열고 "용산참사는 MB식 강권통치가 빛은 불행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긴박한 여야

與 곤혹속 정치 공세 차단 주력

野 “MB식 공안통치가 빛은 불행”

용산 철거민 집압 참가자 정치권의 정점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당장 이번 개각으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면서 공격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황한 분위기 속에서도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이번 사건을 '권력형 참사로 규정하고 일 장관과 김 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당내에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집압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또 이날 열린 2월 임시국회 전락 점검 원내대회를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했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오후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용산 참극은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빚어낸 일대 참극이다"며 "장관부터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정권차원의 철저한 책임 추궁이

■ '용산 참사' 정치쟁점 급부상

한나라 "조사단 급파... 진상 규명 철저"

민주당 "권력형 참사... 책임자 사퇴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예고된 참극이고 공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촛불집회 때 무모자 탄압과 강경진압으로 승진포상을 받은 김 서울청장이 정권을 위해 보인 첫 작표이 폭력집압 살인인란 말"이라고 따졌다.

당시 현장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철거민들의 시위 이를 만에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당 진상조사위 위원장인 김종철 의원은 현장방문 후 브리핑에서 "용산 경찰사장이 오늘 새벽 특공대 투입을

김 서울청장에게 요청하고 김 청장이 투입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청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활짝 새 출발을 다짐한 지 불과 20일 만에 '악재'가 터져나온 데 따른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장문석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사고진상조사단을 구성, 현장에 급파한 데 이어 오후에는 용산구민회관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희태 대표는 '선(先) 진상규명 및

피해자 구제, 후(後) 책임 추궁'이라는 원칙을 정하는 한편 야당의 거센 공세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라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며, 부상당한 분들을 구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 구제를 못 한 상황에서 정치공세를 퍼는 것은 비통한 이 사고처럼 가슴 아픈 일"고 덧붙였다.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있어서 안 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사단도 야당의 공세에 대해 '잘 걸렸다'는 식의 감정 폭력을 행사하며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태도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장 교체와 관련해 사퇴에 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낙마할까

촛불 강경 진압 이어 용산참사 책임론 확산

20일 용산 철거민 집거농성 집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낙마 위기에 처했다.

경찰의 강제집압 과정에서 시위 가담자가 사망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농민 전용철 씨가 사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이날 철거민 사망 사건은 시위자들이 인화성 물질인 시너병을 수십 개나 쏘아놓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한 진압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기에 김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특공대 투입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면 지난 주말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김석기 서울청장이 책임론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 개각 후폭풍 수습 '안간힘'

박대표 "대통령이 정례회동 때 개각명단 보여줬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 19일 단행된 개각을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 진화에 나서는 등 '개각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당에서 풀기차게 요구받은 '당 인사 입각'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소외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이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당청 갈등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20일 "인사는 극비리에 하는 것이 속성이다. 당도 그런 절차는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 도중 전화로 개각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

도와 관련, "청와대 정례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각명단을 보여 줬다"며 "회의 도중 걸려온 전화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교체된다는 사실을 미리 당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광근 의원도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당 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 전체가 청와대와 완전히 소통되는 사태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이번 인사가 경제 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소폭이라는 사실이 이미 당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즉, 개각 과정에서 당이 소외를 받았

다는 시각은 '오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당내 불만은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당청 갈등의 근본요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청와대가 당을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회의일정을 잡지 않은 이유도 참석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에서 회의가 열리면 당내 불만이 공개되면서 당청 갈등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곽승준 '컴백'... 집권 2년차 강력 드라이브 예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브레인'인 곽승준(사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0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미래기획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전격 임명돼 '컴백'했다.

지난해 6월 이른바 '최고기파동'으로 청와대 1차 참모진이 일괄사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곽 위원장의 기용은 이미 지난 해 안병만 전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나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전날 '1·19 개각'에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교육



과학기술부 차관으로,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각각 내정된 데 이어 곽 위원장의 임명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생 종합반 모집안내. 2009년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을 위한 대수능 선행학습반 모집 중. 2009년 명문대 합격 목표 대수능 정규종합 최고반 모집. 예비고 2, 3 주말언·수·외 종합반 (서울대/연고대/교육대 목표). 현, 수업중 편입생 모집중.

산행안내. 1월 21일(수) ▲광주이대로산악회 덕유산 1월21일(수) 등산... 1월 22일(목) ▲광주이대로산악회 덕유산 1월22일(목) 등산... 1월 24일(토) ▲빛고을노스페이스산악회 지리산 천왕봉 1월24일(토) 등산...

광주한빛산악회 순천만 갈매기(천연습지탐방) 2월1일(일) 10시7분 송정리의 대합진 출발(서평구역) 경우 ※ 다음카페:광주한빛산악회 T. 010-8131-3580. 2월 7일(토) ▲광주한빛산악회 제주도 한라산(눈꽃산행) 2월 7~8일(토2일) 7시 영주체육관 출발 ※ 다음카페:광주한빛산악회 T. 010-5037-6217, 010-2663-6294. 2월 15일(일) ▲요산요수산악394회 당양 호남정맥8구간(현시제~강천사) 2월15일(일) 8시 학동 전대병원 응급실 건너 (지하철3번 출구) 출발(영주역, 동광주역) 경우 ※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 T. 011-620-2002.

가은공인중개사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TEL: 062-371-4449 H-P: 010-8269-8549. 진원지구 최고상권 (씨티 메디칼) · 병/의원 임대 및 분양 · 6,000세대가 공존하는 최고상권 · 내과/이비인후과/안과/피부과 등 · 농협, 푸에블로, 페밀리마트 등 상점중. 첨단2단계 생활대책용지 (일반상업지역) · 지구내 상업지역중 최고위치 · 금융기관/병원/학원등 1순위 선호지역 · 1650㎡ (500평) · 가격 상당 후 결정

수원지구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전문 친절 상담 성실 중개. 상가임대: 35m버스정류장 옆 월드캐디센터 (최고요지) -1층 북층형 평당 1,400만 35m 버스정류장 옆 송원프라자 -1층 평당 1,200만 3,4.5층 평당 270만. 상가분양: 월드캐디센터 1층 학국 특별분양 (이비인후과 임점 확정). 상가건물매매: 송강장 옆 5층 건물 (대지 84평 건평220평) 임대료 9억 매매가 12억 실 투자금9억 (용자가능). 금메플 토지: 상업지역 35m\*6m 각지 롯데마트 옆 15m\*15m 각지 아파트단지 앞 15m\*15m 각지 근린생활시설 25m 길게 도로점. 수원지구 내 최고 조건의 토지 다량 확보. 수원지구 중개전문 월드 공인중개사무소 062) 959-1033, 019-608-3372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현 011-002-2532 (광주)현 신촌점, 대전 동소방서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함 형성되어 월세가 다르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들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